

외국인 국내투자 감소폭 확대

8개월 동안 234억 이탈... 세계 경기부진 등 영향·국내금융시장 불안 원인

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0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4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1월에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왜 그럴까

한편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한국경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금융시장이 중국 등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외풍을 많이 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4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라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

되고 있다.

1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1억1000만 달러로 전월(108억8000만 달러)보다 25억7000만 달러 축소됐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급감한 영향이다.

수출은 3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하락해 지난해 5월(16.3%)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통관 기준 수출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패널(-38.5%)과 선박(-33.2%), 석유제품(-38.2%) 등 주력 품목에서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수출가격과 물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수출금액지수는 95.67로 전년동월대비 17.8% 하락했고, 수출물량지수도 121.67로 7.4% 하락했다.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11.7%)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수입은 29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줄어들면서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이는 2009년 8월(31.3%)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다. 품목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28.8%)의 감소폭이 컸고 자본재(-13.1%)와 소비자재(-2.9%) 모두 감소했다. 같은달 수입금액지수는 20.9% 수입물량지수는 5.9% 줄었다

경상수지 흑자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40억4000만 달러)보다 감소 폭이 확대된 45억3000만 달러 감소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내투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다.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233억 870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세계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급격한 자금유출은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신병관 한은 경제통계부 금융통계부장관은 "해외 주식시장 부진 등의 영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레고 "중국 시장 매력적"

크누드스토브 CEO "3% 성장률에도 성장 충분"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진출·철수 여부를 재고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장난감 기업 레고(LEGO)가 중국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고 요르브 크누드스토브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중국 중산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현재 시점의 절반으로 떨어져도 충분히 매력 있는 시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크누드스토브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해도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성장기회가 있다"며 "앞으로 10년동안 중국 시장에 많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에서

선진적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며 "이들 주요 도시에는 덴마크와 유사하며, 중국 시장 확장에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누드스토브 CEO의 발언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시장에서 철수를 검토·결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지난해 11월 중국 동부 자싱(嘉興)에 신규 공장을 연 크누드스토브 CEO는 "우리는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관했다.

실제로 레고의 지난해 중국 수익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고의 전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크누드스토브 CEO는 "지난 5~10년을 보면 레고의 실적은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올해 현대차 전주공장 실적개선 막막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지연·내수 침체 등 때문에

현대차 전주공장의 2015년 차량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2016년 실적개선이 쉽지 않아 생산량 감소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의 2015년 생산량이 전년대비(69,577대→63,464대) 감소했고 2016년 실적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사됐다.

원인은 유로6 도입으로 인한 2014년의 일시적 판매호조와 2015년 내수침체 및 해외 수요부진 등으로 분석했

다.

실제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2년 60,023대, 2013년 61,993대, 2014년 69,577대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63,464대로 생산이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비중으로 보면 2012년 15.4%, 2013년 15.5%, 2014년 17.4%의 국내 생산 비율에서 2015년에는 2012년에도 못미치는 15.1%의 국내 자동차 생산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차종이 버스 및 트럭류인데 중형트럭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국내 내수도 침체가 이어

지면서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스 역시 마을버스 등을 중심으로 중국산 버스 수입이 계속 시도되고 있고 대형버스 시장은 볼보, 스카니아 등의 유럽 메이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2016년 실적도 부정적으로 봤다

내수침체와 해외 수요 부진의 원인이 길어지는 데다 2015년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가 누적돼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현재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현장에서 인력재배치나 비정규직 인력 활용을 둘러싼 갈등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대학생 10명 중 6명 "입학전 슬럼프"

대학생 10명중 6명은 청소년기에 슬럼프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월 전국 대학생 12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68.3%(848명)는 본인을 포함, 현재 대학생들의 슬럼프 방식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남녀 비율은 각

각 51%, 49%였다.

반면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394명)의 경우 남학생(57%)이 여학생(43%)보다 많았다.

아울러 대학생 중 절반 이상(59%)이 청소년 시기에 슬럼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3%(532명)로 가장 많은 대학생이 고등학생 때 처음 슬

럼프를 마셨다고 답했다. 이어 40%(504명)가 '대학 입학 후', '초·중·고교도 194명(18%)에 달했다.

또 주도(主導) 슬럼프에 대한 교육 없이 스스로 슬럼프를 시작한 대학생도 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올해 8년째 대학생 홍보대사와 함께 진행하는 '콜드링크(Cold Linker)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는 캠퍼스 내 책임주주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성주 기자



제주 해역서 어획된 '바다의 로또' 부산지역 8개 선단으로 구성된 대형선망어선이 2일 새벽 제주도 동북쪽 244해구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참다랑어 250t 가량을 어획했다. 이날 오후 선단 어선 중 2척이 실고 온 참다랑어 50t 상당이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 진열되고 있다. 나머지 선박 6척은 오는 3일 새벽 입항해 참다랑어 200t을 유통할 예정이다.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